

# 세계일보

2019년 08월 29일 (목)  
전국 118면

## '한반도 평화 염원' DMZ 가치 세계에 알린다

### 경기도, 내달 'Let's DMZ' 행사

이화영 기자 [ehw@kworld.com](mailto:ehw@kworld.com)

경기도가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케스타 등 영미·북미·유럽 각국 12개 도시에서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 'Let's DMZ' 조직위원장을 겸임한 공보관공보장관과 3명의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디미탈 트레고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Let's DMZ'는 DMZ(대무결지대) 포럼, L.A. DMZ, DMZ, 케스타, S.A.B.T DMZ,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 18일부터 포항-케스타 등 영미·북미·유럽 각국 12개 도시에서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 문정민·조성훈 특별재선도 진행

DMZ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행사를 아우르는 행사이다. 9월 18일 9~12일 남미, 북미, 유럽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위한 국제 담당관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 행사 'DMZ 포럼'이 서울 컨벤션에서 열린다. DMZ, 남한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문정민, 김보라, 스타아님 미국 사장은 경기도기도 연설할 예정이다. 문정민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조성훈 경기도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 세션과 경기연구원 지원한 6개 테마에 관한 12개 기획세션도 진행된다. 이날 21일에는 일과가 끝나서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어스드림, 모모랜드 등 여가활동 그룹과 공연도, 이은미 등 유명 뮤지션의 공연도 유익한 공연이 'Let's DMZ'가 개최된다. DMZ 레스타는 DMZ의 우수 생태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경기행사로 경기도 20개 관광특구에서 열린다. 행사행사의 열매 역시, 유서, 생태, 문화유산 재조명 노크가 있다. DMZ, 평화의 상징

적 모모랜드-스튜디오와 6개 테마가 진행되는 'Let's DMZ'는 북한 유산을 직접 관람하고 남북정상회담 1주년의 의미를, 스타아님 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Let's DMZ'는 지역특색과 연계해 다양한 예술행사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관하고 3월 20일 김포시 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엔 작가들의 최첨단 기술을 시적으로 지어미지스트를 더 커다란 평화의 가치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9월 20일 경기도 북부청사 일 대회의장에서 'DMZ-메이커 콘서트'가 열린다. 그랜드투어가 개막식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청에서 'Let's DMZ'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화영 기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모으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 경인일보

2019년 08월 29일 (목)  
종합 04면

## 평양공동선언 1주년 ... 경기북부서 한달간 'Let's DMZ' 행사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Let's DMZ' 행사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케스타 등 영미·북미·유럽 각국 12개 도시에서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 문정민·조성훈 특별재선도 진행

경인 위원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Let's DMZ' 행사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DMZ 포럼'은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로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화영 고양 컨벤션에서 열린다. 'DMZ, 남한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

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이재명 도지사뿐 아니라, 판타지북 베트남 언론인, 김보라, 스타아님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화영 문정민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조성훈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 세션과 경기연구원 지원한 6개 테마에 관한 12개 기획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화영 도청에서 열린다. /조성훈 기자 [donald@kyeongin.com](mailto:donald@kyeongin.com)

# 경기도 '평화의 DMZ' 열린다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도, 내달 한달간 평화염원 행사 개최  
포럼·공연·토크콘서트 등 풍성**

경기도가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9월 한 달간 고양·연천·김포 등 경기 북부 일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

정동채(전 문화관광부장관) 'Let's DMZ' 조직위원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패스타, ART DMZ 등 4개 주요 행사로 구성된다.

다음달 19~20일 고양컨텍스에서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학술 행사 'DMZ 포럼'이 열린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타킥북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넵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분정인 외교안보특보, 조섭운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세션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6개 테마에 관한 12개 기획세션이 진행된다.

21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아스트로·모모랜드 등 아이돌그룹과 김종석·이은미 등 유명 뮤지션이 선보이는 음악공연인 'Live DMZ'가 개최된다.

18~21일에는 고양컨텍스에서 'DMZ 패스타'가 열린다. DMZ의 우수 생태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로 역사·음식·생태·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이어진다.



28일 경기도청에서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특히 황교익 맛칼럼리스트와 심영순 요리연구가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아북 음식 푸드토크쇼'는 북한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남북정상회담 만찬의 뒷얘기도 들을 수 있다.

'ART DMZ'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마련된 예술행사로 이달 말 연천군 장남동 일바라기 축제장과 9월 초 김포시 아트 빌리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유명 작가들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 아티스트들의 거리공연과 평화작품을 완성해가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22일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는 '피스 메이커 콘서트'가 열린다. 그리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현정곡을 선보이고 노찾사, 정태춘 등 뮤지션의 합동 공연도 펼쳐진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키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경기도 GYEONGGIDO



경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희영 경기도 문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공무원이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Let's DMZ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시정기자

# 9월의 DMZ... '평화 물결' 넘실

道, 평양공동선언 1주년 'Let's DMZ' 개최  
학술·공연·전시·예술 행사 다채, 세계가 주목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9월 한 달 동안 경기북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알리는 Let's DMZ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평화선언문을 채택(분보 2일자 1면)하고, 연천과 김포에서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경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희영 경기도 문화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Let's DMZ는 ▲ART DMZ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해 9월 동안 경기북부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아우르는 명칭이다.

먼저 연천군 장남동일바라기 축제장(8월 30일~9월 1일)과 김포시 아트빌

리지 일원(8월 6~8일)에서 ART DMZ가 진행된다. 이는 접경지역 문화자원과 DMZ의 평화 상징성을 연계, 9월 축제 전체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주요 내용은 ▲라이브 드로잉 DMZ(그래피티 및 디지털 퍼포먼스) ▲DMZ 주크박스 및 인디박스(지역 유산 전시, 거리 예술 공연) ▲놀이 체험 이벤트 등이다. 도는 ART DMZ를 시작으로 접경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DMZ 평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인 DMZ 포럼이 다음 달 19~20일 고양 컨벤션에서 열린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 권태림 박스 페트릭 안광운등, 글로

리아 스티어넬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문정인 외교인보특보, 조셉 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함께하는 가운데 포럼 마지막 날에는 이재명 지사가 친척적인 평화 정책 의지 및 내년 DMZ 포럼 방향을 담은 경기평화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21일에는 암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아스트로, 모모랜드, (여자)아이들, 산들 등 아이돌그룹과 김종석, 이은미, 변 등 유명 뮤지션이 선보이는 음악공연인 'Live DMZ'가 개최된다. 다음 달 18~21일 킨텍스에서는 DMZ의 우수 생태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DMZ 페스타)가 열린다.

다만 클리핀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논의된 북한 인사의 참여는 불발됐다. 당시도가 초청했으나 방문 의사를 받지 못했다.

경동채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평양공동

선언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규기자



Let's DMZ' 기대해주세요.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Let's DMZ 추진 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 '9·19선언 1년' DMZ 한달간 축제 열린다

경기북부 일원 내달부터 행사 포럼·아트페스티벌 등 열려 이화영 "평화 염원 자리될 것"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경기도 'Let's DMZ' 행사가 9월 한 달 동안 고양, 연천, 김포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행사를 아우르는 공동 브랜드다.

먼저 'DMZ 포럼'은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로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도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남북 평

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실행 가능한 아젠더를 도출해 보다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다.

'Live DMZ'는 다음달 21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모모랜드 등 아이돌과 김중서, 이은미 등이 출연하는 대규모 음악공연으로 진행된다. 또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DMZ 페스타'는 DMZ의 우수한 생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로, 다음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ART DMZ'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마련된 '예술행사'로 이달 말 연천군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장과 9월 초 김포시 아트빌리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주요 4개 행사 뿐만 아니라 Let's DMZ 브랜드를 공유하는 다양한 축제행사가 경기북부 일원에서 개최된다.

다음달 22일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PEACE MAKER CONCERT에서

는 그리스 대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헌정곡을 한국 최초로 공연한다. 또 마라이 파란부리의 내한공연과 노랫사, 정태훈 등 유명 뮤지션의 합동 공연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경기 통일한미당, 경기아트페스티벌 등의 행사들도 Let's DMZ 행사기간 전후로 진행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모으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은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기자

# Let's DMZ...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 넘쳐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도, 경기북부에서 다양한 행사

고양에서 국제학술행사 개최  
유명 뮤지션 참가 음악공연도  
DMZ 우수 생태관광 자원 홍보  
지역축제 연계 예술행사도 개최

경기도가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9월 한 달 간 고양·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Let's DMZ 조직위원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Let's DMZ는 ▲DMZ(비무장지대)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주요 행사를 통칭하는 공동 브랜드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Let's DMZ를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 경기도 DMZ 관련 대표 축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인 'DMZ 포럼'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Let's DMZ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경진기자 mono316@

이 다음달 19~20일 고양 컨벤스에서 열린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이재명 지사, 핀터킵족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넵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조현준 전 미국 대학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세션과 경기연구원 등이 준비한 6개 테마에 관한 12개 기획세션도 진행된다.

다음달 21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아스트로, 모모랜드 등 아이돌그룹과 김동서, 이은미 등 유명 뮤지션이 선보이는 음악공연인 'Live DMZ'가 개최된다.

DMZ의 우수 생태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인 'DMZ 페스타'는 다음달 18~21일 고양 컨벤스에서 열린다.

DMZ, 평화, 생태, 관광 등 4개 테마의 주제관을 중심으로 한 전시 행사와 함께 역사, 음식, 생태,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이어진다.

특히 황교익 및 칼럼니스트와 심영순 요리연구가가 함께하는 '이북음식 푸드 토크쇼'는 북한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남북정상회담 만찬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RT DMZ'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마련된 예술행사로 이달말 연천군 장남동 일바라기 축제장, 다음달 초 김포시 아트

밸리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유명 작가들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 아티스트들의 거리공연과 평화작품을 완성해가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이외에 9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는 '피스 메이커 콘서트'가 열려 그리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헌정곡을 선보이고 노홍철, 정태훈 등 뮤지션의 합동 공연도 펼쳐진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모으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경희기자 inq@

## ‘DMZ 평화적 가치’ 학술·음악·예술로 되짚다

### 도, 내달 평양공동선언 1주년 ‘Let's DMZ’ 개최

도북부서 한 달간 포럼·Live·ART·페스타 4개 행사 추진  
해외 운동가 기초 연설-연기가수 초청 공연-토크쇼 마련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9월 한 달간 포럼·음악 공연·전시·예술행사 등이 펼쳐지는 'Let's DMZ' 행사를 고양·연천·김포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개최한다.

평동채(전 문화관광부 장관) Let's DMZ 조직위원장과 이희영 도평화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행사를 통칭한다.

다음 달 19~20일 고양시 컨벤션스에서 열리는 'DMZ 포럼'은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판티키프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넵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조셉 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세션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6개 테마 12개 기획세션이 진행된다.

21일 열리는 'Live DMZ'는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이다. 아스트로, 모모랜드 등 아이돌 그룹과 김홍

서, 이은미 등 유명 뮤지션의 축하 공연에 이어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이 열린다.

'DMZ 페스타'는 DMZ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로 18~21일 킨텍스에서 펼쳐진다. DMZ·평화·생태·관광 등 4개 테마의 주제관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역사, 음식, 생태,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는 물론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와 심영순 요리연구가가 함께 진행하는 '어복음식 푸드토크쇼'도 준비된다.

끝으로 지역 축제와 연계된 아

술행사 'ART DMZ'는 이담 말인 천군정남동원마라기축제장과 9월 초 김포시 아트밸리지 일원에서 각각 열린다. 유명 작가들의 평화 연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 아티스트들의 거리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외 Let's DMZ 브랜드를 공유하는 다양한 축제 행사들이 경기북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평동채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영 기자 ih@khoilbo.co.kr

# 평화염원 'Let's DMZ' 경기북부서 열린다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9월 한 달 고양·연천·김포 일원  
포럼·공연·전시회 등 행사 다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남북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Let's DMZ' 행사가 9월 한 달간 고양, 연천, 김포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퍼스타 ▲ART DMZ 등 4개 행사를 총칭하는 공동 브랜드다.

평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전 문화관광부차관)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라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Let's DMZ' 행사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Let's DMZ'는 'DMZ 포럼', 'DMZ 퍼스타', 'Live DMZ', 'ART DMZ' 등 4개 행사를 총칭하는 공동브랜드로 DMZ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행사를 아우르는 이름이다"라며 "문장에 함축된 무한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 경기도 DMZ 관련 대표 축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Let's DMZ'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날 이화영 부지사는 행사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인천매일-경기도

화'이라고 밝힌 뒤 행사를 차려로 소개했다.

먼저, 'DMZ 포럼'은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판' 활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로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고양 컨벤스에서 열린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 판티집콕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닝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에 나선 예정이다.

여와 함께 김정원 외교안보특별보, 조성은 전 미국 다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세션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6개 테마에 관한 12개 기획세션이 진행되어 열린 토론의 장이 펼쳐

진다.

도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실행 가능한 아젠다를 도출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Live DMZ'는 다음달 21일 토요일 일련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아스트로, 모모랜드 등 아이돌 그룹과 김홍서, 이은미 등 유명 뮤지션의 축하공연과 함께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객과 한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도 준비됐다.

'DMZ 퍼스타'는 DMZ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로 다음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양 컨벤스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도는 파주, 김포에서 평화염원 경기행사, DMZ 사진·미술 전시회 및 소공연 등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본 행사에 앞서 9월초 공연, 양평에서 '찾아가는 DMZ' 행사를 개최해 대한 행사기간 전 사전홍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모으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한반도 평화의 번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7228-8428 7차 line@incheonilbo.com